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순교를 앞둔 베드로

12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13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 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
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5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
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 예수님이 신화가 아닌 이유

16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 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17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18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
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섯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
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
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 예언은 언제나 사
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
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할 것이 있
어 편지를 썼다고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교묘히 꾸며 낸 신
화가 아니며,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베드로가 직접 듣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들으며 체험한 것은 무엇인가요?(16-18절 막
9:2-13 참조)

2.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19절)인 성경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나
요?(20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1절)

• 닦아가기

성경을 신화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세대 속에서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
각하고 있나요?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사람이 쓴 역사책이 아닌 성령으로 쓰
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나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함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2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 낸 말로써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 심판받아 멸망한 거짓 선생들

4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렁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여덟 식구만 지켜 주셨습니다. 6 또한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7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 내셨습니다. 8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9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 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10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3 묵상하기

진리가 뿌리내린 곳에는 어김없이 비진리가 잡초처럼 자라납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과 거짓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향하는 눈과 귀를 막고,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무분별한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해서 성도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노력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던 것처럼(5-8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진리가 외면당하고 도덕적 윤리의 기준들이 무분별하게 무너지는 요즘, 나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4 적용하기

거짓 선생은 내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접근하는 이단의 활동도 있지만,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져',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라며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생각들 역시 거짓 선생과 같습니다. 요즘 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요소들이 있다면, 빨리 분별하고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고 잘되는 것 같고 모두가 따르는 대세라 해도 거짓은 도덕적 영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내가 분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②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세상은 여전히 타락한 문화로 가득합니다. 특히 학생인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제 삶이 지리 안에 굳건히 서서 거짓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이상 없는 짐승과 같은 거짓 선생들

12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13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यो, 흠입니다. 14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15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길을 떠나서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16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17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철쭉 같은 어둠만이 예비돼 있습니다. 18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19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들의 인생

20 만약 그들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지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21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22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3 묵상하기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거짓 선생들 역시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에는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의 특징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거짓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진리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단정하고(12절), 도덕과 양심을 상실한 채 흥청거리고 속이기를 즐깁니다(13절) 또 성적인 타락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서슴없이 죄를 짓고(14-15), 거짓과 혼란스러운 말로 믿음이 역약한 사람들을 자신들과 같은 삶으로 끌어들이니다(14절)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조차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20).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얕이 삶이 되고 또,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4 적용하기

나는 유사 크리스천인가요, 진짜 크리스천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서 정작 세상에서는 성적을, 돈과 성공을,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거짓에 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이름만 크리스천인 '유사 크리스천'인지, 정말 진리를 따르는 '진짜 크리스천'인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베드로가 말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들을 말할까요?
- ②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요?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말씀을 삶으로 잘 살아내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유사 크리스천이 아닌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지는)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재림을 증거함**

1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으로 2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4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5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써 형성된 것과 6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7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

8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9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3 묵상하기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세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마지막 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와 현실에 휘둘러 말씀을 잊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은 늘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거야?" 라며 비아냥거리는 말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다시 가르치는 이유입니다(1-2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시간을 초월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입니다(8절) 심판의 날이 하루 더 미뤄졌다면, 그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9절)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4 적용하기

이 땅은 영원하지 않으며, 나 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열심히 모든 재산도, 잘 관리한 건강도, 공들인 관계도 모두 끝날 때 가 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자꾸만 의심을 심어주는 세상의 말들을 뿌리치세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가르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마지막도 결국 옵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오늘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라면, 나의 오늘은 어제와 달라야 합니다. 또 다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 ②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루하루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구에게 전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눈앞의 문제와 현실에 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주의 날을 사모하라**

-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 13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15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16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8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3 묵상하기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몇 가지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오기는 하는지 관심을 가지며 저마다 이런 저런 말들을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예상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10절). 그날이 되면 세상을 둘러싼 악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 역시 이날은 사모하기보다 두려워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중심이 흔들려 성경이 아닌 다른 메시지에 솔깃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4 적용하기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소 공부를 확실히 해두면 시험이 두렵지 않고, 발표를 잘 준비해두면 앞에 나가는 것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을 앞둔 나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잘 분비된 사람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언제 오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그렇게 나를 가꾸고 준비할 기회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오늘 당장 마지막 날을 맞게 된다면, 나는 어떤 상태로 주님을 마주하게 될까요?
- ②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일상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을 것과 사직할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때를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하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 1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 본 것입니다.
- 2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 3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귀입니다. 4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빛이신 하나님

- 5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서 서로 사귀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3 묵상하기

본분이 기록될 당시 교회들은 외부로는 박해를, 내부로는 이단과 철학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사도 요한은 편지 첫 머리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1절)에 대해 언급합니다. 즉,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짚고 넘어 가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에 따라 나의 신앙과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을 막연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세상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묵상이 생명의 말씀이신 분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며(11절), 깊이 사귀게 되는(7절) 은혜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적용하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마치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듯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나요? 주님은 내가 그분과 사귀는 사이가 되기를, 또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와 사귀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요즘 내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직접 대하며 깊이 사귀는 싶은 대상,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넘치게 주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② 오늘 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자백할 죄악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거룩한 사귀어 오늘 제 일상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1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 계명을 지키는 삶

3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5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뤄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6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8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10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11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